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9.10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5	8	9	10	11	12
13	12	15	16	17	18	19
20	19	22	23	24	25	26
27	26	29	30			

원/달러 환율

1,336.10원 (-9.50원)

KOSPI

7,051.64 (+97.12, +1.40%)

KOSDAQ

830.37 (+18.49, +2.28%)

국고채 10년 금리

4.401 (+0.000%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신흥국 전략 인도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 지속 여부는 불확실 [김근아]

기업분석

셀바이오휴먼텍 마스크팩 소재에서 제조까지 확장 중 [박종대]

엔알비 연 1조원 시장 vs. 1천억원 밸류. 둘 중 하나는 틀렸다 [박찬술]

산업분석

통신 장비 2027년 쇼티지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김홍식]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S-Oil, 대한항공, 한화생명, 농심, 피에스케이홀딩스, RFHIC, 인텍플러스

아로마티카

하나증권

2026년 9월 10일 | Global Asset Research

인도

신흥국 전략

인도 외국인 자금 유입 재개, 지속 여부는 불확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도 증시 외국인 수급 개선되는 추세

최근 인도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FPI)는 7월 약 21억 달러, 8월 약 31억 달러를 순매수하며 두 달 연속 매수 우위를 이어갔다. 8월 순유입 자금 규모는 2024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이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시 관련 자금 쏠림 완화에 따른 신흥국 내 자금 재배분, RBI의 외화유동성 확충에 따른 루피화 변동성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를 본격적인 복귀로 보기는 무리가 있음

그동안 로컬 기관 및 개인 투자자의 꾸준한 매수세가 증시 하단을 지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자금의 복귀는 향후 인도 증시의 추세적 반등을 좌우할 핵심 변수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도 불구하고 8월 NIFTY50 지수는 전월 대비 -1.24% 하락했으며, 9월 들어서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연초 이후 누적 순매도 규모가 약 290억 달러에 달해 최근 두 달간의 순유입만으로 기존 자금 이탈을 상쇄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데다, 최근 유입된 자금의 성격 역시 지수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매수세로 보기에는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8월 외국인 주식 순매수의 39%는 발행시장, 나머지 61%인 약 20억 달러는 유통시장에서 발생했는데, 같은 기간 블록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대금도 약 15억 달러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에는 일부 대규모 거래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자금 유입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대외 여건 역시 우호적이지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원유 순수입국인 인도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민감도가 여타 국가 대비 높은 만큼, 고유가 장기화는 물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 루피화 약세 등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인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인도 자산의 상대적 투자 매력을 낮추고 루피화에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편더멘털 견조하나,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증시 좌우할 전망

최근 발표된 FY2027년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YoY +7.8%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고, 내수소비 역시 아직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편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최근 증시는 성장 모멘텀보다 유가와 글로벌 금리, 환율 등 대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인도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의 완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 전까지는 지수 상단이 제한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2026년 09월 10일 | 기업분석

Not Rated

현재주가(9.09)

6,27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830.37
52주 최고/최저(원)	10,600/5,020
시가총액(십억원)	58.5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9,337.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3.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0.3
외국인지분율(%)	4.09
주요주주 지분율(%)	
이관선 외 8인	37.0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28	27	28	51
영업이익	4	2	2	3
세전이익	3	2	5	4
순이익	2	1	4	3
EPS	236	98	428	351
증감율	(48.9)	(58.5)	336.7	(18.0)
PER	0.0	41.7	7.4	23.3
PBR	0.0	0.8	0.6	1.3
EV/EBITDA	0.0	8.0	6.7	14.7
ROE	6.7	1.9	8.1	6.0
BPS	4,407	5,154	5,583	6,204
DPS	0	0	0	0



Analyst 박중대 forsword@hanafn.com
RA 양정석 jsyang@hanafn.com

셀바이오휘먼텍 (318160)**마스크팩 소재에서 제조까지 확장 중****마스크팩 수출 확대 최대 수혜**

최근 화장품 업종 수출 특이점 중 하나가 마스크팩 수출이다. 2026년 8월까지 YoY 80% 이상 증가했다. 2018년 이후 마스크팩 수출은 계속 감소했고, 2022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있다. 감소는 대 중국 수출 부진 영향이고, 회복은 대 미국 수출 증가 때문이다. 대 미국 수출은 패드 타입의 메디힐과 메디큐브의 기여도가 높다(HS 코드로 겔 타입 마스크팩은 3304로 잡히고 있다). 이들 제품에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가 셀바이오휘먼텍이다. 2010년대는 아사히카세이 부직포 시트가 대세였는데, 셀바이오휘먼텍의 셀룰로스 PT셀이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현재 시트마스크 중고가 시장, 즉 올리브영과 수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주요 브랜드 업체들 대부분 셀바이오휘먼텍의 시트를 사용하고 있다.

2026년 사업구조 다변화 주목, ODM 사업 고신장 중

PT셀은 셀룰로스 분자제어 기술로 밀착성과 보습성을 높였고, 이어 개발된 세미겔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제로모공패드/네모패드 등 패드 형태 마스크팩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 엠보 원단도 공급하고 있다. 최근 세미겔의 시각적/기능적 우수성이 부각되면서 얼굴형/패드형 타입 모두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아울러,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품으로 여드름 패치 등 완제품을 OEM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ODM 사업을 본격화하여, 올해 매출 규모 150억원(예상치)의 신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트/하이드로겔 마스크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가파른 수요 증가로 제2공장을 설립, 2027년 1월 가동을 앞두고 있다. 하이드로겔 라인 2개->3대, 시트 라인 3대->8대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5.7배, 현저한 저평가

2분기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55% 증가한 170억원과 20억원을 기록했다. 일회성 성과급(13억원) 지급이 있었다. 참고로, 1분기 PT셀 매출이 크게 떨어졌던 이유는 핵심 거래처 M사의 시트 매입 구조 변경 때문으로 2분기 이후 정상화되었다. 3분기 매출은 201억원(YoY 39%), 영업이익은 40억원(YoY 112%, OPM 20%)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ODM 업체들의 Capa 부족에 따른 공급 불안 영향으로 미리 2027년 물량 생산을 원하는 거래처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4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매출 규모가 QoQ 별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 2026년 별도 매출 668억원(YoY 31%), 영업이익 100억원(YoY 192%, OPM 15%) 수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12MF PER 5.7배로 글로벌 마스크팩 시장 확대, ODM 부족 현상에 따른 높은 성장 여력을 감안하면 현저한 저평가 상태다.

2026년 09월 10일 | 기업분석_스몰캡_Report

Not Rated

현재주가(9.9)

9,1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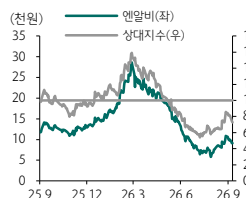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830.37
52주 최고/최저(원)	28,600/5,800
시가총액(억원)	992.9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0,898.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4.6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8.7
외국인지분율(%)	6.38
주요주주 지분율(%)	
강건우 외 3인	46.63
이성규	5.1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억원)	1,030	N/A
영업이익(억원)	130	N/A
순이익(억원)	61	N/A
EPS(원)	424	N/A
BPS(원)	8,405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80	515	528	595
영업이익	22	121	62	45
세전이익	(158)	36	10	(22)
순이익	(156)	15	20	(5)
EPS	(2,750)	263	260	(58)
증감율	N/A	흑전	(1.1)	적전
PER	0.0	0.0	0.0	(254.8)
PBR	0.0	0.0	0.0	1.8
EV/EBITDA	0.0	0.0	0.0	3.6
ROE	113.0	(22.2)	5.0	(0.6)
BPS	(2,416)	(1,112)	4,797	8,135
DPS	0	0	0	0



Analyst 박찬솔 chansolpark@hanafn.com
RA 김진우 jinwookim1336@hanafn.com

엔알비 (475230)

연 1조원 시장 vs. 1천억원 밸류. 둘 중 하나는 틀렸다

국내 최대 모듈러 공장을 보유한 업체

국내 최대 규모 PC(Precast Concrete) 모듈러 생산시설을 보유한 업체다. 현재 공장 3개 사이트(군산1, 군산2, 김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모듈러 최대 CAPA는 군산1 4,600개, 군산2 4,400개, 연간 화장실 최대 CAPA는 김제 4,000개다. 모듈러 1개의 공급가격은 평균 1억원 수준으로, 현 실질 CAPA는 4,600개(4,600~5,000억원)다. 국내 콘크리트 주거 문화를 감안해 Precast Concrete 방식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작하는 것이 철골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기업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자 경쟁력이다.

26년 2월 후 하락해온 주가, 4Q26에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이유

26년 7월 2일, 8개월간의 수장 공백기가 있었던 LH에 신임 사장으로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며 공공주택 관련 정책 불확실성으로 26년 2~7월 주가가 빠졌지만, 이제 주가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있다.

1) 4Q26에 26년 공공 모듈러 주택 발주가 몰려 있다. 기존 계획은 LH 연 3천 세대 공급이다. 26년은 4Q26부터 공급이 시작된다. 모듈러 기준 포천송우 754세대, 남양주왕송 500세대, 고양창릉 822세대로 총 2,076세대의 공공입찰 발주가 10~11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천세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Q27 전까지 추가 900~1,000세대에 대한 발주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년 연말과 27년 연초에 3~6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입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본다.

2) 27~30년 매년 최소 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 정부가 26년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라 기존 매년 3천 세대 공급에서 5천 세대로 계획이 상향 조정됐다. 엔알비 공급이 기존 매년 1조원 시장이 만들어진다. 24~25년 고층 모듈러 주택 시장 내 엔알비의 점유율은 40~50%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점유율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27년 연말까지 신규 수주가 최대 7,5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현재 수주잔고가 1,000억원 초반(하남교산 수주 예정 물량 미반영 수치)인 것을 감안하면 27년 체급 레벨업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다.

3) 1Q27까지 CAPA를 추가 확장한다. 군산 1공장에서는 4,600 → 5,600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한다. 또 27년 신규 수주 물량에 대비해 군산 2공장도 설비를 완비할 계획이다.

투자의견 및 밸류에이션

2Q26 수주잔고 약 1,400억원 중에서 의왕초평은 약 650억원이 남아 있다. 하남교산은 (26.02.11 공시) 엔알비가 PC모듈러 836억원 규모 공사의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의 상대방으로 이미 지정되었지만, 아직 수주잔고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투자 참고 사항이다. 현재 엔알비의 시총 약 1천억 원은 실질적인 수주잔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향후 기대되는 신규 수주 대비 매우 크게 저평가 되어 있다. 신규 수주 흐름 속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작동 시 엔알비의 주가 상승 강도는 매우 강할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09월 10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9월 09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8,47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9,70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9,3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5,350원

아이씨타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5,40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8,20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42,3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4,00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0,21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1,87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37,600원

통신 장비

2027년 쇼티지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2027년 미국과 더불어 한국도 5G 투자 재개 예상, 반면 업체 수는 지속 감소 중

최근 피지컬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AI 기지국으로의 전환, 5G/6G 신규 주파수 할당 및 CAPEX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한국이 동시에 투자에 나선다면 2027년~2029년엔 통신장비 공급 부족 발생 가능성이 높다. 무선통신장비 업체들의 경우 글로벌 SI 업체간 M&A와 더불어 아웃소싱 장비 업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사 업종간 합병, 상위권 업체 위주로의 재편, 지역별 업체간 합병 등이 주된 요인이다. 7년에 한번 성수기가 다가오는데 자금력이 충분치 못한 기업의 경우 버티기 힘들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비수기에도 연구 인력을 유지해야 언제 있을지 모를 장비 성능 시험에 응할 수 있고 적기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데 보릿고개를 버티지 못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20년간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 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 점차 변모하고 있다. 3G 도입 이후 업체 수 감소로 본격화 되었는데 LTE 도입 이후 심화되었고 5G 도입 이후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다만 LTE 도입 시기가 국가별로 달랐고 5G의 경우엔 국내/미국/일본/중국의 5G 투자 열기가 기대와 달리 그리 높지 않았으며 투자 시기도 상이 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 간헐적 쇼티지 발생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일시적 쇼티지 현상이긴 하나 2012년 NXP, 2019년 KMW 등의 업체가 대표적이다. 만약 5G 도입 초기 한국/미국/일본이 동시에 고주파수 투자에 나섰다면 공급 부족 파장이 크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퇴출은 쉽지만 신규 진입은 매우 어려운 통신장비 업체 실상 고려해야

기존 업체들이 버티기 힘든 반면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구조적으로 통신장비 업체는 새로운 업체 진입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갖는다. 보수적인 통신사들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함에 따른 네트워크 운영상 위험이 따르고 기존에 깔려 있는 장비를 A/S해야 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새롭게 선정된 장비 업체가 네트워크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벤더에서 제외된 업체의 기존 장비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난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비간 호환성이 떨어지고 타사 네트워크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신사들은 수십년 간 거래해온 업체를 대다수 유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수급 상황 국내 통신장비 업체에 더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

2019년 이후 미국/중국간 패권 경쟁 상황도 장비 공급 부족 가능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한국/일본을 주력 시장으로 갖고 있는 글로벌 SI 업체들이 더 이상 중국 부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아웃소싱 부품/장비 업체 수 감소로 믿을만한 벤더를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 부품 업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타 지역 벤더들의 쇼티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RFHIC/KMW/LIG아큐버/썬리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바이오로직스 (207940.KS)	9/7	1,447,000	1,452,000	0.35%	• 록빌 공장 매출 반영과 고환율 효과로 연간 매출 성장 가이드선 상단 달성 가능성 높아 • PolyPeptide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며 중장기 생산능력·사업 영역 확대
삼성SDI (006400.KS)	9/7	548,000	574,000	4.74%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순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S-Oil (010950.KS)	9/7	157,300	165,900	5.47%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대한항공 (003490.KS)	9/7	30,200	29,800	-1.32%	• 화물운임,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등해 유가 상승의 부담을 상당히 상쇄 • 2026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 합병 이후 실적 개선 기대
한화생명 (088350.KS)	9/7	5,740	5,710	-0.52%	• 중장기납 종신보험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신계약 수익성 크게 개선 •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에 따른 주주환원 불확실성 완화 기대
농심 (004370.KS)	9/7	430,000	413,500	-3.84%	• 2Q26 Review 매출액 9,561억원(YoY +10.2%), 영업이익 593억원(YoY +47.6%) 기록 • 북미 수익성 개선 및 글로벌 라면 업체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9/7	144,000	152,400	5.83%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HIC (218410.KQ)	9/7	48,300	49,700	2.90%	• 방산 매출 확대와 RF머트리얼즈 실적 호조로 이익 성장세 지속 • 미국 Upper C-band 주파수 경매와 국내 5G SA-6G 투자 재개가 중장기 성장 모멘텀
인텍플러스 (064290.KQ)	9/7	40,150	44,950	11.96%	• 북미 고객사향 반도체 검사장비 수주 확대와 어드밴스드 패키징 투자 수혜 기대 • 고마진 반도체-기판 검사장비 비중 확대와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 기대
아로마티카 (0015N0.KQ)	9/7	10,120	10,460	3.36%	• 아마존 판매 급증과 북미 오프라인 채널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매출 고성장 지속 전망 • 자체 생산-R&D 기반의 높은 제품 경쟁력과 해외 매출 비중 확대가 중장기 성장 동력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3.06%	-2.36%p	+76.64%	+11.8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KS)	9/7	1,647,000	1,856,000	12.69%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 - 자기주식 취득만 40조원이면 긍정적. 추가 주주 환원도 대기
S-Oil (010950.KS)	8/31	149,200	165,900	11.19%	- 베네수엘라의 OPEC 탈퇴 및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대두 - OPEC의 균열, 중동의 가격 결정력 약화 및 아시아 정유업체의 원가 경쟁력 강화 요인
코스맥스 (192820.KS)	8/24	271,000	266,500	-1.66%	- 국내 고성장과 미국 법인 흑자전환, 동남아 턴어라운드가 동시에 진행 - K-뷰티 수출 호조와 글로벌 ODM 1위 경쟁력이 본격 반영되는 가운데 12MF PER 11배 수준
NAVER (035420.KS)	8/18	228,000	210,000	-7.89%	- AI 데이터센터 공급 부족 속 엔비디아 지분투자 및 200MW 고객사 계약 가시화 7년 이상의 GPU 운영 역량을 기반으로 2027년부터 AI DC 매출이 본격화될 전망
한화에어로스페이스 (012450.KS)	8/10	1,097,000	1,047,000	-4.56%	- K9 자주포·천무 중심의 유럽·중동 수출 확대로 지상방산 수주잔고 약 39.7조원까지 증가 -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과 수주 기대감 재차 확대될 전망
삼성SDI (006400.KS)	8/10	459,000	574,000	25.05%	- 북미 ESS 라인 본격 가동과 소형전지 가동을 상승으로 하반기 흑자 기조 지속 기대 2Q26 7개 분기 만의 흑자 전환에 이어 2027년 영업이익 1.48조원 전망
팬오션 (028670.KS)	8/10	6,040	6,010	-0.50%	- BDI 강세와 탱커 운임 상승으로 벌크·탱커 부문 이익이 확대되며 호실적 기대 - SK해운 인수 VLCC의 실적 기여와 중장기 운임 강세가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404,000	22.94%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중산 (103140.KS)	8/3	71,200	79,900	12.22%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72,000	-6.72%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65,000	13.05%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5.33%	-2.42%p	+41.89%	-22.92%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증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4,805	-8.6%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41,375	40.0%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6,530	-10.3%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 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시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0,030	-13.7%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RISE AI전력인프라 (0101N0)	2026.08.28	20,520	20,850	1.6%	- 국내 AI 전력 생태계에 포괄적으로 투자하는 ETF로 발전 설비뿐 아니라 송배전, 데이터센터 후공정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반을 커버 - 하이퍼스케일러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북미 지역의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방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전력망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은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수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HANARO 글로벌 금채굴기업 (473640)	2026.08.28	36,855	34,915	-5.3%	- 글로벌 우량 금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 금 현물 투자와 달리 편입 기업들의 배당 지급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 -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실물 자산인 금의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되는 금 채굴 기업들의 투자 매력도 부각될 전망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18,275	-14.2%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9,240	-7.4%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과세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재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종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2) 전일종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종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종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종가) 기준

주3) 국내 ETF의 기준가 및 종가 통화: 원(KRW)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증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24	85.06	13.1%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44	96.62	-1.8%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 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8.42	90.87	2.8%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CI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3.09	94.01	1.0%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26.13	573.73	75.9%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인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PAVE (미국 인프라)	2026.08.24	56.39	54.81	-2.8%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82.63	181.97	-0.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6.22	161.93	3.7%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기준 최신 마감 증가(한·중·일 ETF: 편입 당일 증가, 미국 ETF: 편입 전영업일 현지 증가) 기준

주2) 전일증가는 작성일 기준 최신 마감 증가(한·중·일 ETF: 작성 당일 증가, 미국 ETF: 작성 전영업일 현지 증가) 기준

주3) Global ETF의 기준가 및 증가 통화: 달러(USD)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9.6	9.7	9.8	9.9	9.10	9.11	9.12
	- 일본 7월 선행지수 (117.9, 이전치 116.5) - 독일 7월 산업생산 (-1.1%, 이전치 0.2%)	- 한국 2분기 GDP P (0.6%, 이전치 0.6%) - 일본 2분기 GDP F (1.4%, 이전치 1.1%) - 미국 8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98.7, 이전치 99.8)	- 한국 8월 실업률 (2.7%, 이전치 2.8%) - 중국 8월 PPI (3.8%, 이전치 3.5%) - 중국 8월 CPI (0.8%, 이전치 0.5%)	- 유로존 9월 기준 금리 (E 2.65%, 이전치 2.4%) - 미국 8월 PPI (E 5.3%, 이전치 4.7%) - 미국 8월 기준주택매매 (E -1.6%, 이전치 -1.7%)	- 일본 8월 PPI (E 7.4%, 이전치 7.2%) - 미국 8월 CPI (E 3.4%, 이전치 3.4%) - 미국 8월 근원 CPI (E 2.4, 이전치 2.5%)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E 51.0, 이전치 51.7)	
9.13	9.14	9.15	9.16	9.17	9.18	9.19
	- 일본 7월 설비가동률 (E --, 이전치 4.1%) - 일본 7월 광공업생산 (E --, 이전치 4.1%)	- 한국 8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9.1%) - 한국 8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18.7%) - 중국 8월 소매판매 (E 0.5%, 이전치 0.6%) - 중국 8월 광공업생산 (E 4.9%, 이전치 4.5%) - 유로존 9월 Zew 서베이 (E --, 이전치 31.4)	- 일본 7월 핵심기계수주 (E --, 이전치 9.7%) - 미국 8월 소매판매 (E 0.8%, 이전치 -0.6%) - 미국 9월 NAHB 주택시장지수 (E --, 이전치 35)	- 미국 9월 기준 금리 (E 3.75%, 이전치 3.75%) - 유로존 8월 CPI (E --, 이전치 3.3%) - 영국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3.75%) - 미국 8월 주택착공건수 (E --, 이전치 -12.4%) - 미국 8월 미결주택매매 (E --, 이전치 -2.3%)	- 한국 8월 PPI (E --, 이전치 7.7%) - 일본 9월 기준 금리 (E --, 이전치 1.0%) - 일본 8월 CPI (E --, 이전치 1.9%) - 미국 8월 광공업생산 (E 0.3%, 이전치 0.2%) - 미국 8월 선행지수 (E --, 이전치 0.2%)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